

# “셰익스피어, 당신 위해 연기 혼 불사르겠소”

광주연극배우협회 10주년 기념  
반무섭씨 연출 ‘베니스의 상인’  
‘포셔의 명판결’ 현대적 해석  
13~18일 광주 공동예술극장

재미있는 스토리와 의미를 담은 희곡 작품, 이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연출가의 힘은 연극 보는 재미를 이루는 필수 요소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무대에 서는 배우들의 변화무쌍한 연기다. 관객들과 가장 밀착해 기운을 객석으로 전하는 ‘배우들의 역할’은 연극의 역기능이기도 하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개별 극단들 공연을 볼 때 아쉬운 점의 하나가 바로 배우들 양상불이다. 주연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는 일부 조연 연기는 작품의 흥미를 반감시킬 정도로 곱돌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지역 배우들이 극단과 관계 없이 함께 무대에 올라 보여주는 광주연극배우협회 공연은 ‘배우 연기’의 진수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광주연극배우협회(회장 이기인)가 창립 10주년 기념작 ‘베니스의 상인’을 무대에 올린다. 13~18일 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3시~7시, 일요일 오후 5시 광주 예술의거리 공동예술극장.

광주연극배우협회는 매년 다양한 고전 작품을 무대에 올려왔다. 지금까지 막심 고리키의 ‘밀바닥에서’, 위화의 ‘허삼관 매형기’, 채홍의 ‘벚꽃동산’과 ‘갈매기’, 아더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 테네시 윌리엄스의 ‘유리 동물원’, 입센의 ‘인형의 집’ 등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공연돼 온 작품들이 연극팬들을 만났다.

올해 선택한 작품은 서거 400주년을 맞은 세계적인 문학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다.

빛을 감지 않을 경우 ‘살 1파운드를 빼내겠다’는 사일록 캐릭터로 많이 알려



광주연극배우협회 회원들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13~18일 공동예술극장에서 상연하는 ‘베니스의 상인’을 연습하고 있다. <광주연극배우협회 제공>

진 ‘베니스의 상인’은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이면서 무이자로 재정적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 도와주는 기독교도 안토니오와 융통받은 이자로 돈을 버는 고리대금업자 사일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여기에 현명한 여인 포셔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번 작품의 연출은 극단 ‘작은 신화’를 이끌고 있는 연출가 반무섭씨가 맡았다. 반 씨는 광주연극배우협회와 함께 테네시 윌리엄스의 ‘육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함께 공연했었다.

반 연출가는 기존 셰익스피어 작품이 갖고 있는 분위기는 그대로 살리되, ‘규제에 묶인 운명을 과감히 떨쳐 나가는 당찬 여인 포셔의 로맨틱 어드벤처 코미디’라는 부제를 붙이고 색다른 연출을 시도했다.

반씨는 연출가의 변에서 “이 작품은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의 대립을 보여준다”며 “어느 시대든 돈과 사랑이라는 문제가 삶의 의미를 밝히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말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연극배우들의 로망이기도 하다. 오랜만에 정통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터라 연습에 임하는 배우들의 의욕도 높다.

주인공 사일록 역으로는 지역의 대표 배우 노희철씨가 출연하며 포셔 역은 정경아씨가 맡았다. 그밖에 이명덕·최진영·정태석·이정진·김장준·노은지·정다현씨 등이 출연한다. 또 무대 디자인 이현, 조명 디자인 김수원, 안무 김소영씨 등 많은 스태프들이 함께 작품을 만들고 있다.

“배우협회가 만들어낸 이유가 배우들

의 기량 향상과 권의 보호예요. 협회는 요즘 보기 힘든 리얼리즘 작품들을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배우부터 중견배우들까지 모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신진 배우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입장에서, 중견 배우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자신의 연기를 돌아보며 반성도 하고, 새로운 의지도 다지고 있습니다.”

이기인 광주연극배우협회 회장은 “이번 작품을 올리기까지 경제적 문제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배우들의 의지로 결국 공연을 하게 됐다”며 “고전작품을 탐구하며 배우들 역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켓 가격 일반 3만원, 청소년 2만원. 문의 010-5686-040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문화전당 1주년 기념 ‘변사가 된 수집광’

7일 정성일 영화 평론가

14일 신형철 조선대 교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1주년을 기념해 ‘변사가 된 수집광’ 행사를 개최한다.

문화전당은 올해 하반기 라이브러리 ‘아시아의 실험영화’와 ‘비디오아트’ 주제관을 ‘아시아의 필름 앤 비디오’로 통합했다. 비디오아트, 실험영화, 상업영화 등 다양한 예술 영상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변사가 된 수집광’은 ‘아시아의 필름 앤 비디오’ 주제관의 첫번째 대중 프로그램이다. 오는 7일에는 영화잡지 ‘키노’ ‘로드쇼’ 편집장을 역임한 정성일 영화평론가가 변사로 나선다. 정씨는 ‘휴일’(감독 이만희), ‘오명’(알프레드 히치콕), ‘국외자들’(장 롱 고다



정성일 평론가 신형철 교수

르) 등 애장 영화를 함께 보고 해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14일에는 문학평론가 신형철 조선대 교수가 참여한다. 신 교수는 ‘화양연화’(왕가위), ‘디아워스’(스티븐 달드리), ‘토니 타카타니’(이치카와 준)를 소개한다.

참가 비용은 무료이고, 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 블랙박스 1에서 진행된다. 문의 1899-5566.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 별발 30번째 동시집 ‘나를 부르는 노란 별’

동시를 지향하고 참신한 서정성을 추구한다는 모토로 시작한 별발동인 이울해로서는 번째 동인집 ‘나를 부르는 노란 별’(도서출판 해동)을 펴냈다.



광주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동시 시인들을 멤버로 지난 1984년 창립된 ‘별발’은 지금까지 세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동인지를 발간하며 활발한 지역 아동문학 발전을 일구고 있다.

이번 동인지에도 천진난만하면서도 순진무구한 어린이의 마음을 동시로 형상화한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이들 동인들에게 동시는 “어린이의 눈과 마음이 되어 부른 노래”이자 “어른들의 속된 마음을 동심으로 되돌려 주는 몸부림”이다.

작품집에는 양희성·윤삼현·이성

룡·이옥근·이정석·조기호·고윤자·고정선·공공로·김관식 시인의 작품이 수록돼 있으며 이정석 평론가가 동료 동인 이옥근 시인의 작품 세계를 분석한 ‘이옥근 동시문학에 나타난 현실 비평의식’ 평론도 담겨 있다.

고정선 회장은 “1984년 동시를 쓰는 이 지역 출신 시인들로 동인이 구성돼 있다”며 “지금까지 두 해 정도를 제외하고 매년 동인지를 발간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문학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 회장은 “올해는 동인창립 30주년 외에도 회원들에게 좋은 소식 이 줄을 이었는데 고정선 회원이 2016년 목포문학상을, 고윤자 회원이 천강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윤삼현 회원은 제9회 광주일보문학상인 ‘백년을 기다린 대나무꽃’을 발간해 겸경사를 맞았다”가 덧붙였다.

한편 이번 동인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전남문화관광재단의 문예진흥기금 보조를 받아 발간됐다. /박성천기자 skypark@

## 서현일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모두 32곡에 달하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진행중인 피아니스트 서현일씨가 다시 한번 클래식 팬들을 만난다. 8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개인 독주회를 준비하는 틈틈이 다양한 연주자들의 반주자로 바쁜 연주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그가 이번엔 들려주는 작품은 모두 5곡이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23번 ‘열정’을 비롯해 베토벤의 초기 후원자 중 한명이었던 발트슈타인 백작에게 헌정한 21번 ‘발트슈타인’, 경쾌한 연주로 일명 ‘빠꾸기 소나타’로 불리는 25번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22번과 24번도 함께 들려준다.

호남예술제 출신으로 광주에 재학중 독일로 유학을 떠난 서씨는 드레스덴 국립 음대에서 수학했으며 귀국 후 서울시립교

8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23번 ‘열정’ 등 5곡 연주

향악단 현대음악 시리즈인 ‘아르스 노바’ 객원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다. 광주시향, 대전시향 등과 협연했으며 지난해 한국음악협회에서 수여하는 한국음악인상 신인상을 수상했다. 현재 전남대, 광주대, 광주영재 교육원 등에 출강중이다

티켓 가격 전석 2만원. www.hyunilseo.com. 문의 010-3646-79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미래 교육콘텐츠 세미나’ 10일 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미래 교육 콘텐츠 동향과 전망 세미나’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문화정보원 B2 아카데미강의실에서 연다.

이원곤 아시아문화원 창작제작센터장은 ‘가상현실과 장소성’을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틸트브러쉬를 활용한 3차원 드로잉’,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아크릴랩프 메이킹’워크숍이 열린다. 문의 1899-5566. /김홍희기자 kimyh@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구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정밀농사 10년째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